

麟蹄숯둔골숯굽기놀이

— 제 5 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때 : 1987 . 6 . 27 ~ 28

곳 : 홍천군 공설운동장

인 제 군

배 경

인제 「숯둔골 숯굽기」는 한국의 명산 雪岳山과 대찰 백담사가 있는 산자수명한 「自然文化의 고장」이며 山蔘이 숨어 살고 있는 靈地의 고장입니다.

특히 옛부터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서울宮中の 건축자재와 연료를 공급한 「山林産業文化」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英祖大王 이전에 만들어진 「黃腸禁標」가 바로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습니다.

더우기 조선조 宮中の 난방연료가 「숯」이었다는 경복궁의 십장생 굴뚝등을 해체분석한 결과 숯은 宮中の 온도조절, 화재방지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문화재관리국 조사팀에 의해 밝혀짐으로써 인제 숯둔골의 백탄과 검탄은 宮중에 수납 되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남면 어론 2리(숯둔골)는 약 300년 전 함, 지, 박(咸氏, 池氏, 朴氏)삼성까지 세가구가 이 골에 들어와 「숯」을 구워 생계를 유지했다는 설화가 전해오며 그 연유로 「숯둔」이라는 골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그후 벼농사가 잘되어 벼「禾」자와 숯「炭」자를 써서 「禾炭」이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인제 화탄 숯둔골의 숯은 최상품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 있었읍니다.

발 굴 , 재 현

「인제 솥둔골 솥굽기놀이」는 우리 조상의 애환이 가득 담긴 한 장면을 재현하는 민속놀이로서 다음분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강원대학교 박민일교수(강원문화연구소장)의 조사를 통해 원형을 재현하게 되었다.

특히 「인제 솥둔골 솥굽기놀이」는 인제군 남면 어론 2리(솥둔골) 함, 지, 박 후손들로 구성, 제 5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게 되었다.

※ 고증을 해 주신분

인제군 남면 어론 2리	張	永	昌(68세)
〃	趙	萬	煥(75세)
〃	安	得	洙(68세)
〃	朴	性	澤(72세)

출 연 과 장

작품구성은 입산, 가막박기(솥가마만들기), 가마치성, 불지르기(점화), 한마당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과 장 : 입 산

등걸잠방이, 짚신, 머리수건을 맨 일행이 도끼, 낫등을 주루먹에 넣어 지고 입산한다.

제 2 과장 : 가막박기 (숯가마만들기)

통치기와 전담을 쌓아 올려 가마를 만들고 그 가마에 다듬은 나무를 세워 넣고 등치기소리를 하며 천천히 ~ 빨리... 애벌, 두벌치기를 한다.

제 3 과장 : 가 마 치 성

아낙네들이 치성준비를 위해 제사음식을 만들은 것을 등치기가 끝나면 숯가마가 망가지지 않고 숯이 잘 구워져 달라고 고천신과 산신께 치성을 드린다.

- * 치성이 끝나면 음식을 고시레하고 술을 가마 전후좌후 네곳에 붓고 일동 음복한다.

제 4 과장 : 불지르기 (점화)

숯가마에 불을 질러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참여자들 모두가 환성을 울리며 사물(四物)을 강하게 친다. 이러는 동안 한편에서는 국수대, 새, 싸리로 흥겨운 소리를 하면서 숯섬을 만든다.

제 5 과장 : 한 마 당 놀 이

참여자 모두 농악에 맞추어 숯섬을 지게와 멜방으로 지고 아낙네는 숯섬을 머리에 이고 일부는 각종 소도구를 들고 신명나게 풍년가를 부르며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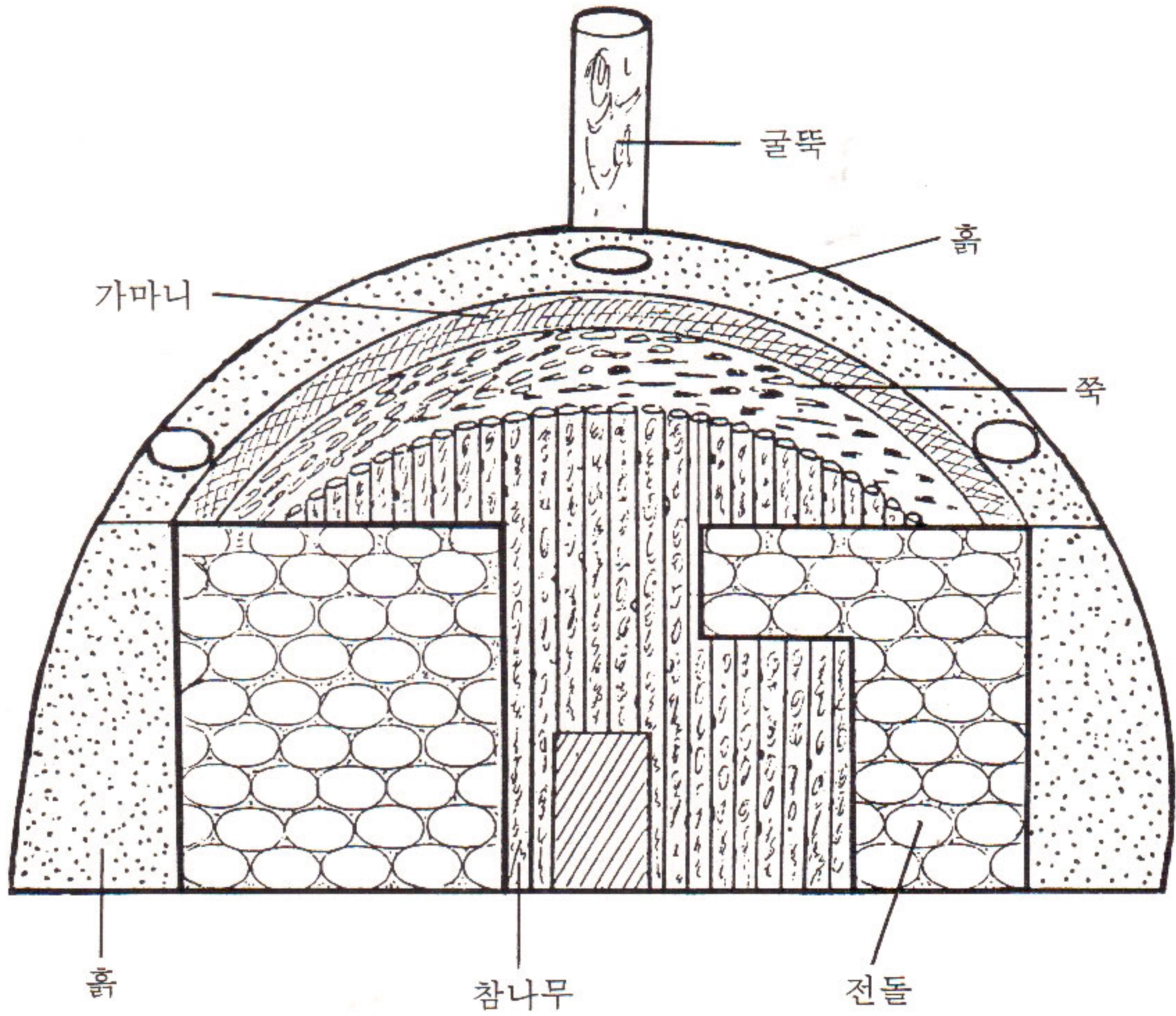
이를 끝으로 퇴장한다.

출 연 자

- 출연인원 : 45명 (남 42, 여 3)
- 조사, 재구 : 朴 敏 一 (강원대학교 교수)
- 지 도 : 朴 海 順 (인제축산협동조합장)
- " 張 福 漢 (원통고등학교 교사)

배역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등치기	윤희선	52	등치기	심군흠	30	소	최인득	29
"	김두수	44	"	구지훈	44	가래질	신봉길	51
"	임명수	30	"	박동욱	30	"	심재호	56
"	윤태성	27	"	송경춘	34	"	안득수	68
"	함인엽	32	"	김옥기	30	농악대	김상혁	65
"	박공로	45	"	박철희	30	"	이종명	67
"	윤재빈	41	선소리	박해순	65	"	이상주	45
"	김주환	31	비수안	박성택	72	"	박재성	54
"	김진홍	31	가마주인	이응춘	48	"	장영근	47
"	윤기선	42	기수	김길영	30	"	정승국	59
"	황경모	44	"	이종수	35	"	문제윤	60
"	김경섭	47	"	송경운	42	"	김명환	54
"	임명권	31	"	윤영도	47	아낙네	최영진	31
"	송경상	31	소주인	장순길	57	"	유옥춘	32
"	심도흠	30	소	윤태권	36	"	김정수	34

가마 구조



維

禾炭山川祝文

歲次丁卯年六月丁未朔初二日戊申 幼學○○○○

敢昭告于

時維炎夏 謹以蔬菜 愚民伏祝 山川之神 城隍之神
神樹峯之神 五溪谷之神 受命上帝 造化無雙

揔察萬衆 撫恤庇休 禾炭衆庶 上供下育 疾疫無災

虎豹遠行 六畜繁殖 東平西安 無少無大 莫非神德

物雖菲薄 猶感之誠 非今斯今 春如秋如 神供感顧

永奠厥居 靈神尚 饗

등 치 기 소 리

어 화 세 상	벗 님 네 야	에 야	탄 이 야
이 내 말 좀	들 어 보 소	"	
이 내 소 리	주 는 대 로	"	
온 갖 힘 을	다 해 가 며	"	
아 주 광 광	때 려 주 소	"	
해 동 조 선	강 원 인 제	"	
남 면 어 론	숫 둔 골 에	"	
함 씨 지 씨	박 씨 살 아	"	
함 지 박 골 이	생 졌 는 데	"	
숫 을 구 워	먹 고 살 아	"	
숫 둔 이 라	불 려 졌 네	"	
소 복 산 의	준 령 타 고	"	
두 메 안 골	생 졌 으 며	"	
소 각 봉 을	찾 아 가 니	"	
쌍 솔 베 기	눈 에 띄 고	"	
절 골 ~ 을	들 어 가 니	"	
번 개 석 이	보 이 누 나	"	

속 새 골 을	들 어 가 니	에 야	탄 이 야
선 녀 바 위	근 엄 하 다	"	
도 롱 봉 에	범 ~ 바 위	"	
신 수 봉 서	내 려 보 니	"	
오 개 탕 이	절 경 이 다	"	
해 가 뜨 나	달 이 뜨 나	"	
일 구 월 심	비 는 마 음	"	
숫 을 구 면	상 탄 되 고	"	
가 마 치 면	철 판 되 고	"	
어 화 등 등	내 자 식 아	"	
칠 기 청 산	보 배 든 가	"	
만 첩 청 산	꽃 송 이 야	"	
귀 엽 기 도	측 량 없 네	"	
만 지 며 는	부 서 질 까	"	
떨 어 지 면	깨 어 질 까	"	
은 을 주 면	너 를 살 까	"	
금 을 주 면	너 를 살 까	"	
금 자 동 아	은 자 동 아	"	
일 가 친 척	우 애 동 아	"	

이 웃 에 는	화 목 동 아	에 야	탄 이 야
부 모 에 는	효 자 동 아		"
나 라 에 는	충 성 동 아		"
세 살 까 지	젓 을 먹 고		"
칠 세 부 터	글 을 읽 어		"
천 지 현 황	삼 년 독 하 니		"
언 재 호 야	하 시 독 하 리		"
시 전 서 전	논 어 맹 자		"
주 역 팔 경	무 불 통 달		"
십 오 세 에	초 시 하 니		"
이 십 세 에	대 과 급 제		"
조 선 팔 도	구 경 하 니		"
함 경 도 에	백 두 산 은		"
압 록 강 이	둘 러 있 고		"
평 안 도 에	묘 향 산 은		"
대 동 강 이	둘 러 있 고		"
황 해 도 에	구 월 산 은		"
세 류 강 이	둘 러 있 고		"
경 기 도 에	삼 각 산 은		"

임진강이	둘러있고	에야	탄이야
충청도에	계룡산은	"	
백마강이	둘러있고	"	
전라도에	지리산은	"	
공주금강	둘러있고	"	
경상도에	태백산은	"	
낙동강이	둘러있고	"	
제주도에	한라산은	"	
사해바다	둘러있고	"	
강원도에	금강산은	"	
세계명산	되여있다.	"	
관동팔경	살펴보니	"	
통천에는	총석정이요	"	
고성에는	삼일포라	"	
간성에는	청간정이요	"	
양양에는	낙산사라	"	
강릉에는	경포대요	"	
삼척에는	죽서루라	"	
울진에는	망향루요	"	
평해에는	월송정이라	"	

여 보 시 오	민 간 인 네	에 야	탄 이 야
구 경 한 번	잘 했 는 데		"
힘 도 들 고	숨 도 차 니		"
드 문 드 문	때 려 주 소		"
어 떤 사 람	팔 자 좋 아		"
고 대 광 실	높 은 집 에		"
네 귀 에 다	풍 경 달 고		"
대 청 마 루	돈 우 서 서		"
흥 에 겨 워	하 는 말 이		"
개 문 하 니	만 복 래 요		"
소 지 하 니	황 금 출 이 라		"
당 상 학 발	천 년 수 요		"
슬 하 자 손	만 세 영 이 라		"
인 생 래 세	명 월 래 요		"
인 생 거 세	부 운 거 라		"
우 화 능 선	영 생 극 락		"
공 수 래 에	공 수 거 라		"
부 귀 공 명	탐 하 지 마 라		"
부 귀 빈 천	돌 고 돈 다		"
에 야 탄 이 야	에 야 탄 이 야		"

